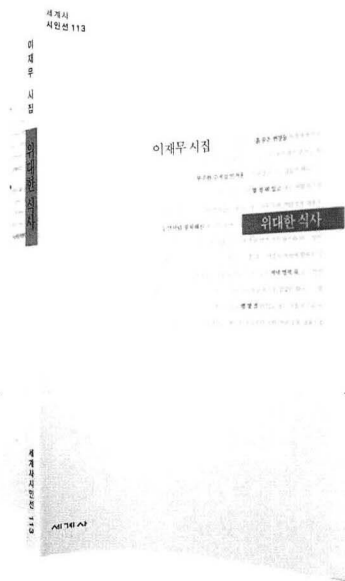


# 고향집 안마당 저녁밥상 같은 시 《위대한 식사》

유응오\_〈주간불교신문〉 기자



《위대한 식사》 | 이재무 지음 | 세계사 | 154쪽 | 값 5,500원



불교사상에서는 자연을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로 나눈다. 이중 욕계는 온갖 욕망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곳으로, 지구과학으로 보자면 대기권에 해당된다. 색계는 욕계와 무색계의 중간단계이며, 무색계는 온갖 욕망의 잡념을 멸한 상태, 즉 열반에 다다른 지경을 일컫는다. 지구과학으로 설명하자면 만유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진공상태의 우주라 할 수 있다.

최근 인류의 가장 큰 패러다임은 환경이다. 이러한 흐름에 문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작가와 작품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가 바로 이재무 시인이다.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해로 들어가면 으레 고향을 치기 마련이라는, '잠수함 속의 토끼'가 시인의 덕목이라고 본다면 이재무 시인은 이를 매우 충실히 이행해 온 시인이다.

그의 시집 《위대한 식사》는 시인이 본격적으로 환경문제에 시선을 돌려 풍작을 일군 수확물이다. 특히 인간의 삶은 빠진 채 자연의 완미(불교적으로 말하자면 법신法身)만을 극찬한 여느 생태시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대개의 생태시가 앞서 설명한 불교의 욕계와 색계, 무색계의 연관관계를 무시한 채 가이없이 무색계의 경지를 찬탄

한 것이라면, 이재무의 시편들은 욕망의 악순환을 통해 만신창이가 된 생태계를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시인은 여느 시인들처럼 고찰에 들러 범신과 무작정 하나가 되어 '불이不二'를 노래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소위 문학에서 말하는 진정성이 그의 시에는 묻어 있다.

시집 《위대한 식사》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생태시편들과 시인 자신의 생활에 비치는 속물근성을 자학하는 구도자적 자세가 돋보이는 시편들과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바라보는 삶의 아련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편들로 크게 나뉜다. 세 가지 부류의 시편 모두 완성도가 빼어나 시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행갈이'를 완벽하게 했다 할 만하다.

먼저 시집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일관된 정서로 흐르는 시집의 주류 시상詩想인 생태시편을 살펴보면 〈감자꽃〉과 〈위대한 식사〉, 〈강경역〉 같은 작품이 눈길을 끈다.

시인이 스스로 시집의 대표작으로 꼽고 있는 〈감자꽃〉은 씨눈을 도려내 묻어야 꽃을 피우는 감자의 생태를 통해 '불임의 여자'를 끄집어내는 시력視力이 돋보이는 수작으로 '지고지순한 여성성을 노래한 에코페미니즘의 심상'으로 읽혀지기도 하고, '뒹진한 농촌공동체의 현실을 고발한

보고서'로 해석되기도 한다. 전자의 입장에서 읽으면 감자꽃은 '눈부신 생의 환희를 앓고 있는' 세상의 저편 모퉁이에서 '퍼런 젊음이 분하고 역을해서 우는 불임의 여자'로 해석돼 에로스적 미학을 더하고, 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감자꽃이 기계화된 생산문명에 도태된 농촌공동체의 현실로 읽혀 가슴이 막막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시인이 자신의 원형공간으로 농촌공동체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시편에서도 잘 드러난다. 시인의 발길보다 먼저 마음이 닿는 곳, <강경역>을 보자. 시인은 자신의 고향에 닿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하는 기차역 '강경역'을 통해 정인(情人)의 이미지를 끄집어낸다. 때문에 시인에게 강경역은 '생의 사립문'인 동시에 '들어서면 다습고 깊고 아늑한 상한 짐승이 찾는 동굴'인 것이다.

다른 시편 <팽나무가 쓰러, 지셨다>도 시인의 심상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시인은 쓰러진 팽나무를 보며 '우리 마을의 제일 오래된 어른 쓰러지셨다'고 말한다. '단 한 장의 수의, 만장, 서러운 땀도 없이 불로 가시고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팽나무는 시인에게 '잘 늙는 일이 결국 비우는 일이라는 것을 내부의 텅빈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시집 제목이기도 한 <위대한 식사>는 농경문화에 뿌리를 박고 있는 중장년층의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련한 풍경을 펼쳐보인다.



산그늘 두꺼워지고 흙부름은 연초록을  
허청에 합부로 날뜨려지고  
마당가 매캐한 모깃불 피어오르는 다 늦은 저녁 멍석 위 둥근 밥상이다.  
빈한한 농가의 밥상이 '위대한 식사'로 명명될 수 있는 것은 시가 지닌 반어와 역설의 미학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바로 자연과 인접한 곳에서 자연을 닮은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이기 때문이다. 시집 <위대한 식사>

아, 그날의 위대한 반찬들이여  
농주에 취한 달의 거친 숨소리  
습기가 뒹뒹 비틀대는  
래지붕 위로 나리를 현현,  
트림 몇 번으로 컸고 사립문 나사면  
까담모를 손으로 아삭처럼 부수해  
배어 문뚝고추의 독한,  
아, 새까맣게 물러오던 풀벌레  
미미한

이러한 까닭에 함부로 써낸 인스턴트 시에 입맛을 잃은 독자들에게 '뜨거운 우렁된장' 처럼 깊은 맛을 주고 있다.

반면 시편 <폭주족>은 시인이 바라보는 도시문명의 병폐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시인은 '자정 너머 게릴라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폭주족을 보면서 '낮의 질서가 버린 고아들이다'고 말한다. 이는 무간지옥(無間地獄)이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폭주족으로 묘사한 것으로 문명비판의 메시지가 담겼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인의 문명비판적 시각은 세상뿐만 아니라 시인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시인은 시편 <아아, 박지만>을 통해 독재자의 아들로 '자조, 자괴, 자학의 짐승'으로 바닥에서 바닥으로 오류의 '生'을 살아간 1958년생 동갑내기 사내를 보면서 '서글픈 자화상'을 그린다. 그리고, 시인은 말한다. '참으로 유감이지만 나는 그를 보며 나를 읽는다'고...

한편 시집에 간간이 드러나는 아련한 삶의 심상을 노래한 시편들 역시 시집을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시편 <제부도>는 대부도와 제부도의 거리를 통해, 물과 바다의 거리를 통해 사랑의 법칙을 읽을 수작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 말이야  
대부도와 제부도 사이  
그 거리만큼이면 되지 않았잖나  
손뼉이면 팔덜덜, 그러나  
닿지는 않았고, 난애 삼삼삼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이가 말이야  
제부도와 대부도 사이  
가득 채운 바다의 깊이만큼이나 되지 않았잖나  
그리움만으로 가득 출렁거린다,  
간조 뒤에 온다. 상상의 길 개화처럼 열린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말이야  
이별 말이야  
하루에 두 번이면 되지 않았잖나  
아주 섬섬지는 않겠어  
자주 서럽고 자주 울리지는 않겠어  
그것은 사랑하는 이의 자랑스러운 변단이라네

<제부도>를 읽으면 부석사 무량수전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나무와 나무가 숲을 이루듯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이다. 미당 서정주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와 비견될 만한 연시 <제부도>는 우주만물이 연기의 법칙 아래 인드라망(그물망)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바로 그 웅숭깊은 화엄사상을...